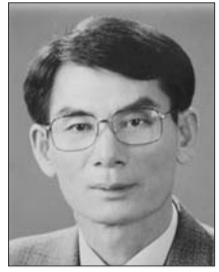


호매칼럼

겁방용전(怯防勇戰)

- 겁으로 막고 용기로 싸운다 -



이정랑 /중고교전평론가

'겁방용전(怯防勇戰)'은 '손자병법' '세편(勢篇)'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이는데 다분히, 철학적이다.

혼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스려진 데에서 나온 것이며,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용기에서 나온 것이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데서 나온 것이다.

손자는 용감한 소질을 갖추려면 겁먹고 약한 마음으로 적을 막고, 현명하고 용기 있는 기세로 적을 공격할 것을 강조한다. '병경백자' '근재(謹字)'에도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용병에 위태롭지 않은 때가 없으니 늘 삼가야 한다. 군영에 들어가 서는 정찰하듯 하며, 국경을 나서면 엄숙한 태도를 취하고 외교(교섭)에 임하면 손에 넣는 것이 해가 없는지 조사하며, 험준한 산이나 숲을

지날 때는 반드시 첩자가 있는지 수색해야 하며, 적의 음모가 있지 않나 헤아리고, 내 쪽에서 여유 있는 계략을 세우야 한다"

'겁을 먹고 방어한다'는 '겁방(怯防)'은 적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적을 방어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투 과정에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언제든 지 삼가고 신중해야 한다. '용감하게 싸운다'는 '용전(勇戰)'은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필승의 신념과 두려움 없는 기세로 용감하게 적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남조 양나라 무제 때인 503년의 일이다. 남양의 태수 풍도군(馮道根)은 북조 동위(東魏)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변방의 중요한 군사 기지인 부릉(阜陵)에 주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사람들을 동

원하여 전쟁 준비를 진행 시켰다. 성을 단단히 수리하는 한편 사람을 보내 적의 상황을 정찰하게 하는 등 정작 적이 진짜로 쳐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할 사람처럼 지나치게 철저한 대비를 했다. 사람들은 그가 적을 너무 두려워한 다며 비웃었다.

풍도군은 모두에게 이것이 바로 '겁방용전'의 이치라며 전쟁 준비를 계속 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부릉성의 수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동위의 장수 당법종(黨法宗)이 군사 2만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에 성안의 많은 사람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릉성을 못 지키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

그러나 풍도군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적이 표면적으로는 사기가 왕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만 믿고

무조건 공격만 하려 들며 수비 태세가 안 되어 있기에 역공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풍도군은 2백 명의 용감한 정예군을 뽑아 위군이 미처 전열을 가다 듣기 전에 갑자기 성을 나와 적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위군은 순간적으로 큰 혼란이 벌어져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용감한 부릉 군민과 뛰어난 지휘력을 가진 풍도군을 보고 겁에 질린 당법종은 잔병을 수습해 퇴각했다.

방어는 튼튼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하며, 공격은 허점을 찾아야 한다. 튼튼하게 힘을 기울여 먼저 자신을 패할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는 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정신과 지혜로운 담력으로 물질적 역량의 차이를 메운다. 그래야 적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적에 대한 방비를 충분히 해놓지 않고 적을 깔보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투의 함성이 이미 울려 퍼졌는데도 지나치게 적을 헤아리고 있다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예로부터 방비 없이 승리를 거두려는 군대 안에는 '모험'으로 성공을 기도하는 장수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모험은 도박이나 투기와 다를 바가 없다.

'겁방'과 '용전'은 상반되지만 서로 어울려야 제힘을 발휘할 수 있는 두 측면이다. '겁방'이 있어야만 적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적의 행동을 깊게 연구하고 파악해야만 적을 꺾고 승리하는 군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농어촌 민박 소방시설 설치 지원합니다



김고운 /여수소방서 홍보담당

을 위한 사전신고제 운영 ▲야광소화기 및 야광 피난유도선 무료 설치 ▲무각본 가상소방훈련 등이 있다.

특히,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관리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으며, 여수소방서와 민박관계자와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방화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여행객들의 화재 및 재난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여수는 지난해 관광객이 977만 명 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는 곳이다. 그만큼 민박시설과 소방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의 안전의식이 아닌가 싶다. 관광객들은 당연히 새로운 곳에 여행 온 만큼 설레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 가보는 민박 등에서 소화기·비상구 등 대피할 수 있는 곳을 꼭 먼저 확인하길 당부한다. 또 담뱃불, 가스버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여수에서 즐거운 추억도 쌓고 안전하게 돌아가길 바란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철을 맞아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도 해제되어 민박 및 펜션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늘어날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기를 위한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소방서에서는 다양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거리 민박시설에 소방호스 보급 ▲각종 화재예방 매뉴얼 배부 ▲이용객들의 안전

5월만 가정의 달? 365일이 가정의 날



김경진 /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이기주의가 만연해지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붕괴 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자식이 노부모를 폭행하거나 방임·학대하는 경우, 본인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학대는 물론, 심지어 죽이는 경우까지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과거에는 가정 내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큰 위기로 대두되면서 가정 내 문제는 이제 가정 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노인·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신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 의무를 두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 또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5월은 어린이의 날, 아버지의 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모의 날 등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가장 많이 있는 달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일명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우리 사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5월이 되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5월을 맞이해 사회,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노인·아동학대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연습에서 노인·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어도 '내 일 아니냐?' '나만 안 그러면 되지?'라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5월이 되면 모든 국민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가정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하지만 5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또 다시 부모님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덜 하려 한다.

어느덧 5월도 끝자락에 들어섰다. 5월 하늘은 정말로 푸르다.

무더운 여름날 나무 그늘은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고, 매서

운 겨울날 두꺼운 울타리는 우리의 찬바람을 막아준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나무 그늘과 울타리가 되어 줘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아니 우리는 365일 가정의 날이어야 한다.

5월만 푸르고, 5월만 어린이의 날이고, 5월만 우리를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1년 365일이 푸르고, 언제나 어린이 날처럼, 언제나 우리들 세상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국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주변에 관심을 갖고, 내 부모를 내 아이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차남도프린트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만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TEL : (062) 363- 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 총장.....223-4123
무등.....224-4188
동부.....234-4235
학동.....225-0651
광천.....374-2120
화정.....374-3713
금호.....376-7153
쌍촌.....371-9584

- 상무.....381-5310
서부.....651-0004
송암.....362-4102
농성.....362-4102
진월.....671-7276
봉선.....675-5530
중앙.....521-5640
중흥.....433-1503
양산.....574-3745
운암.....521-4270

- 오치.....261-9461
문흥.....261-9462
일곡.....573-3200
등문.....525-8994
두암.....266-1920
침단.....971-1920
신창.....955-0451
월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 목포...010-8718-1234
순천...010-9656-1383
광양...010-9656-1383
나주...010-3644-7272
나주...010-3644-1309
담양...010-3602-3550
곡성...010-3647-6161
구례...010-8597-0053

- 보성...010-3626-4776
화순...010-2430-5055
영광...010-9860-5489
완도...010-5066-4708
장흥...010-5665-8354
신안...010-4217-9480
강진...010-3775-2369
장성...010-3610-7824

- 무안...010-9271-8517
여수...010-8587-2288
함평...010-4132-8080
영암...010-4604-3742
진도...010-8525-4567
해남...010-3471-6542
호흥...010-7175-3500
광산...010-7613-4320